

바울 서신의 ‘마음’ 번역에 대한 제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의미론과 신학적 고찰—

이재현*

1. 들어가면서

‘마음’이라는 우리말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일곱 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1)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2)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3)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4)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5)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 (6)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好意)의 감정, (7)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이런 일곱 개의 의미를 종합하면 ‘마음’이란 지정의(知情義)와 관련한(2, 3, 6) 인간 인격의 중심(1)으로서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반응(2, 6)과 판단 혹은 결정(5, 7)을 할 수 있는 곳(3)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마음’이란 단어의 묘사와 정의, 그리고 그것의 기능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성경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은 여러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특별히 의미론과 관련해 타당한 근거 없이 전체성을 전가하는 문제(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는 심각하다. 이 상황은 성경 원문의 단어를 이해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의미를 타당한 근거 없이 한 단어에 밀어 넣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말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이란 표현을 단어와 의미론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실제 본문 석의를 통해 번역상의 문제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

*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한동대학교 교목. is4267@hotmail.com.

1)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마음”,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7. 1. 10.).

해 성경 전체에 걸쳐 조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본 연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 서신 해석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분량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란 단어를 통해 저자가 전달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비교적 잘 드러난 예이기 때문이다.

2. 문제 상황(1): 단어 연구에 있어 근거 없는 전체성 전가 (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의 문제

단어 의미의 전체성을 근거 없이 한 단어에 전가하는 개념은 영국 성서학자 바(James Barr)가 1961년에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성서 언어의 의미론)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²⁾ 당시까지 유행했던 성경의 단어와 의미론에 대한 어설픈 언어학적 적용, 특히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 단어 신학사전이라고 평가받는 TDNT가 갖고 있는 단어와 개념의 무분별한 연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기본 개념은 이렇다. 한 단어는 여러 문맥에서의 용례를 통해 그 뜻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적 의미가 개별 문맥과 상관없이 그 단어의 모든 용례 속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가정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즉, 귀납적으로 큰 의미를 종합한 후 타당한 근거 없이 그 종합된 의미를 연역적으로 모든 경우들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바는 이런 접근 방식이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ἐκκλησία*(“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³⁾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여러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들과 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첫 할부금(first instalment)” 등등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하면, *ἐκκλησία*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첫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문맥에서 사용된 모든 경우가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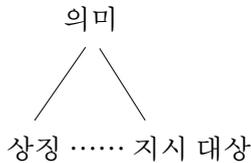
2)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218-262; P. Cotterell and M.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9), 106-128; D. A. Carson, *Exegetical Fallacies*,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53, 61-62;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5-27; Constantine R. Campbell,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15), 85.

3)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218.

고백 후 예수가 언급한 교회라는 표현(마 16:18)이 마치 위에서 말한 포괄적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당한 근거 없이 전체성을 한 단어에게 전가하는 이런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미론과 관련한 오해 요소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오그던(C. K. Ogden)과 리처즈(I. A. Richards)의 삼각형 도식에 의하면 단어는 상징(symbol)과 의미(sense), 그리고 지시 대상(referent)의 요소들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⁴⁾



상징이란 언어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코끼리’와 영어의 ‘elephant’란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시 대상은 실제든 가상이든 상징으로 표현하는 실재를 말한다. ‘코끼리’나 ‘elephant’가 지시하는 동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미란 상징으로 지시 대상을 표현할 때 담겨 있는 이미지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코끼리’가 갖고 있는 큰 몸집과 큰 코를 갖고 있는 어떤 동물의 개념이다. 문제는 이런 상징의 표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시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라는 상징의 언어 표현은 그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코끼리를 알아도 전달자가 의미하는 코끼리와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전달자가 아프리카 코끼리를 생각하고 ‘코끼리’라는 상징으로 표현했지만, 듣는 자는 인도 코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어와 개념 혹은 의미의 연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해의 암초가 많은 과정이다. 근거 없는 전체성 전가는 이런 암초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단순한 발상이다.

둘째, 단어 선택과 관련한 저자의 의도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단어는 반드시 저자의 선택 과정의 결과로 전달된다. 이 개념은 20세기 언어학의 선구자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학 연구에 기인한다. 그는 언어를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요소로 구분했는데, 전자가 사회

4) C. K. Ogden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Brace & Co., 1945), 11.

성이 담긴 일반적 언어 체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선택이 담긴 대화 과정을 의미한다.⁵⁾ 이후 개인의 선택은 단어와 관련한 언어학 연구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여겨졌다.⁶⁾ 하지만 의미에 대한 전체성을 타당성 없이 한 단어에 전가해서 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저자가 단어 선택을 통해 대화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저자의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화와 관련한 상황 정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⁷⁾ 이 역시 소쉬르의 언어 연구와 관련 있다. 그는 언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문서 비교를 중심으로 한 20세기 이전의 통시적 연구 방법 대신 말을 통한 현재의 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공시적 접근 방법을 구분해서 제안했다.⁸⁾ 이 제안은 대화하는 개인들과 사회의 언어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 과정의 상황 정보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었고, 이후 언어학에서 단어 연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 정보는 단순한 환경 제공의 역할을 넘어 단어의 사용과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음도 인식하게 되었다.⁹⁾ 즉, 대화의 환경이 달라지면 동일 단어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체성의 의미를 모든 단어에 근거 없이 적용하게 되면 상황 정보를 무시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오류가 생길 여지가 많아진다.

이상에서 보듯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무분별하게 적용해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해석은 본문의 뜻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바가 지적인 것은 성경 원문의 단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함

5) Ferdinand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 trans. (New York: McGraw-Hill Book, 1966), 7-15, 77-78.

6) 한 예로 레빈손(Stephen H. Levinsohn)은 신약 헬라어의 강화 특성에 대한 책 서문에서 언어의 기능적 접근의 전제는 “선택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Choices implies meaning)”라고 언급한다. S. E.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A Coursebook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2000), viii; 참고, Steven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10), 5-7; Constantine R. Campbell,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78-79.

7) 언어학에서는 세 종류의 상황 정보를 구분한다. 하나는 흔히 문맥(co-text)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문과 관련된 글 속의 상황 정보이다. 두 번째는 실제 상황(context of situation)에 대한 정보이며, 세 번째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적 상황 정보(context of culture)이다. M. A. K. Halliday and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48-49.

8) Ferdinand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77-78, 101-39. 이 개념을 도입해 신약에서 사용된 구약 본문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에 대한 비평적 고찰은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159-184를 보라.

9)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139.

정이다. 그렇다면, 번역된 단어들은 이 현상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으로 표현된 단어를 중심으로 동일한 오류의 현상으로 가보자.

3. 문제 상황(2): 우리말 번역의 ‘마음’이란 단어가 주는 문제들

3.1. 주요 번역본들의 용례

우리말 번역본에서 ‘마음’이란 단어의 수는 번역본에 따라 다르다. 바울 서신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개정』의 사용례가 서로 다른데,¹⁰⁾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고린도후서(각각 45번과 49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면 『개역개정』에서는 로마서(26번)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각 책에 대한 빈도수는 아래와 같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로마서	26	37	35
고린도전서	15	28	23
고린도후서	21	45	49
갈라디아서	2	5	6
에베소서	10	9	10
빌립보서	9	16	22
골로새서	7	9	11
데살로니가전서	4	5	8
데살로니가후서	3	3	3
디모데전서	4	5	7
디모데후서	4	2	7
디도서	1	0	0
빌레몬서	2	3	2

로마서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를 분석하면 세 번

10)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major/feature.aspx>)에 있는 우리말 주요 성경 역본 중 개정된 것 세 가지를 비교한 것이다.

역본에서 공통으로 많이 번역된 것과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의 단어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마음’으로 많이 번역한 단어들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καρδία*와 *νοῦς*, 그리고 *φρονέω*이다.

*καρδία*는 가장 많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이다. 『개역개정』은 26번의 ‘마음’ 표현 중 15번을 이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했고, 『새번역』은 37번 중 15번 사용했다. 두 번역본 모두 같은 구절에서 ‘마음’이란 번역을 했다.¹¹⁾ 이 단어는 『공동개정』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35번 중 12번을 사용하여 번역했다.¹²⁾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heart로 이해되는데, BDAG는 신체적, 영적, 심리적 삶의 근원을 의미하는 heart와 인간 내면의 요소를 말하는 interior, center, heart라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용례들을 정리해서 설명한다.¹³⁾ 마찬가지로 루와 나이다(J. P. Louw and E. A. Nida) 사전 역시 “사람의 삶의 다양한 요소를 가진 심리적 이유의 근원”으로서의 heart와 인간 내면의 것을 말하는 inside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¹⁴⁾ 이런 설명과 용례들에 의하면 *καρδία*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 의지와 태도 같은 삶의 여러 표현들을 제공하는 근원 혹은 인간 내면의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제시한 ‘마음’이란 우리말 단어와 거의 부합되는 표현이다. 로마서에서의 실제 용례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καρδία*는 여러 부분에서 육체와의 대조 혹은 말의 고백과 비교되는 인간 내면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예, 롬 2:15, 29; 6:17; 10:6, 8, 9, 10).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의미 영역 단어들과의 조합을 통해 그 내면 요소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¹⁵⁾ 여기에는 인지와 생각 등과 관련한 의미 영역 단어들과¹⁶⁾ 정서와 관련된 단어들,¹⁷⁾ 그리고 내면 상태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나 태도, 판단과 관련된 의미 영역

11) 로마서 1:21, 24; 2:5, 15, 29; 5:5; 6:17; 8:27; 9:2; 10:1, 6, 8, 9, 10; 16:18.

12) 로마서 1:21; 2:5, 15, 29; 5:5; 8:27; 9:2; 10:1, 8, 9, 10; 16:18.

13)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F. W.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508-509.

14)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321, 715.

15) 의미 영역과 루와 나이다 사전에 대해서는 이민규,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에 대한 평가와 사용 방법”, 『성경원문연구』 15 (2004), 350-373을 참고하라.

16) *ἀσύνετος*: 의미 영역 32(이해: 롬 1:21); *φρόνημα*: 의미 영역 26.15(사려 깊은 계획: 롬 8:27); *ἀνάχων*: 의미 영역 31(견해나 믿음과 신뢰를 가짐: 롬 16:18). 여기서 사용된 숫자는 루와 나이다 사전에서 의미 영역을 분류한 숫자이다.

17) *ἐπιθυμία*: 의미 영역 25(태도들과 감정: 롬 1:24); *λύπη*와 *ὀδύνη*: 의미 영역 25(롬 9:2); *εὐδοκία*: 의미 영역 25(롬 10:1). 참고, 사랑(*ἀγάπη*)과의 연결(롬 5:5).

단어들이 포함된다.¹⁸⁾

우리말 번역본에서 ‘마음’으로 자주 번역된 또 다른 단어는 νοῦς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6번 번역했다(롬 1:28; 7:23, 25; 11:34; 12:2; 14:5). 하지만 『공동개정』은 로마서 12:2만 ‘마음’으로 번역해서 다른 것들과 차이를 보인다. BDAG에 의하면 이 단어는 크게 사고 기관, 사고하는 방식, 사고의 결과로서의 의견이나 가치관 등의 세 구분으로 그 용례를 정리하는데, 모두 ‘생각하는 것’과 관련 있다.¹⁹⁾ 루와 나이다 사전도 마찬가지이다. 심리 기관(의미 영역 26)의 하나로서 사고와 관련한 의미 영역(30[생각하다]) 속에 위치시켰다.²⁰⁾ 인간 내면의 제반 영역을 포함한 καρδιά와 달리 사고와 생각 차원에 집중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으로 자주 번역된 또 다른 단어는 φρονέω라는 동사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롬 11:20; 12:16[2번]), 그리고 『공동개정』(롬 8:5[2번]; 12:16) 모두 3번 번역했다. BDAG는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과 사고 작용을 하는 것 혹은 그것에 의해서 어떤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의 구분을 통해 이 단어의 용례들을 설명한다. 모두 생각과 사고 작용에 대한 것들이다.²¹⁾ 위의 νοῦς와 의미 영역이 겹치지만, 사고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외적 반응과 태도의 요소가 더 있는 것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단어들 외에 각 번역본들이 ‘마음’이라고 표현한 그리스어 단어들이 여럿 있다. 『개역개정』의 경우 로마서 1:28과 15:6에서는 각각 ἐπίγνωσις와 ὀμθυμαδόν을 ‘마음’과 ‘한 마음’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로마서 15: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개역개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주요 단어들을 번역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먼저 ἐπίγνωσις를 ‘마음’으로 번역한 역본은 『개역개정』 밖에 없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 『개역개정』보다 많은데 대부분 의역을 하면서 ‘마음’을 첨가한 형태이거나²²⁾ 태도나 감정과 관련한 단어들(의미 영역 25[태도들과 감정들]과 57[주다-관대함], 88[부러워함, 질투])을 ‘마음’과 연결시켜 번역한 것들이

18) ἀμετανόητον: 의미 영역 41(행위와 그와 관련된 상태들: 롬 2:5); σκληρότητά: 의미 영역 88(윤리-도덕적 자질과 그와 연관된 행위: 롬 2:5).

19)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680.

20)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324, 350.

21)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872.

22) 『새번역』: 롬 1:9(μάρτυς γάρ μου ἐστὶν ὁ θεός에 대한 의역), 13(προεθέμην에 대한 의역); 6:15(ἀμαρτήσωμεν에 대한 의역); 15:14(μεστοὶ ἐστε ἀγαθωσύνης에 대한 의역); 『공동개정』: 로마 7:22(ἔσω ἄνθρωπον에 대한 의역); 8:16(πνεύματι ἡμῶν에 대한 의역); 11:7(ἐπαρώθησαν에 대한 의역), 25(πώρωσις에 대한 의역); 15:14(μεστοὶ ἐστε ἀγαθωσύνης에 대한 의역).

다.²³⁾ 『공동개정』은 다른 두 번역본과 달리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의역과 관련해서 로마서 7:22의 ἔσω ἄνθρωπον(“속사람”)과 로마서 8:16의 πνεύματι ἡμῶν(“우리의 영으로”)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φρόνημα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점도 다르다(롬 8:6, 7).

3.2. 용례 분석을 통해서 본 문제점들

3.2.1. 번역의 일관성 문제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번역한 용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한 가지는 번역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당한 근거 없는 전체성 전가와 관련한 문제이다.

먼저, 번역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 『개역개정』의 경우 καρδιά와 νοῦς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번역을 유지했다. 이 두 단어는 로마서 전체에 걸쳐 각각 15번과 6번 사용되었는데, 『개역개정』은 이 두 단어가 사용된 모든 부분을 다루어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 주요 단어인 φρονέω에서는 그 일관성이 무너진다. 로마서에 총 9번 언급된 이 단어를 ‘마음’으로 3번(롬 11:20, 12:16[2번]) 번역하고 ‘뜻’으로 1번(롬 15:5),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생각’이나 그와 관련된 것으로 번역했다(롬 8:5; 12:3[2번], 14:6[2번]).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καρδιά와 νοῦς를 대할 때와 다른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사 φρονέω와 동족어인 φρόνημα라는 명사는 일관성 있게 ‘생각’으로 번역한 점이다(롬 8:6[2번], 7, 27). Φρόνημα를 ‘생각’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했으면 동족어 φρονέω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번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관성 부재의 문제는 로마서 1:28에서 ‘마음’으로 번역한 ἐπίγνωσις에서도 나타난다. 로마서에서 3번 사용된 이 단어를 로마서 3:20에서는 ‘깨닫다’로 번역했고 로마서 10:2에서는 ‘지식’으로 번역했다. 다르게 번역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다른 두 번역본도 마찬가지이다. 『새번역』은

23) 『새번역』: 롬 11:11(παραζήλωσαι [의미 영역 88]); 12:8(ἀπλότητι [의미 영역 57], ἰλαρότητι [의미 영역 25]), 11(ζέοντες [의미 영역 25]); 14:15(λυπείται [의미 영역 25]); 15:2(ἀρεσκέτω [의미 영역 25]), 26(εὐδοκέω [의미 영역 25]), 27(εὐδοκέω [의미 영역 25]); 『공동개정』: 로마 7:18(θέλειν [의미 영역 25]); 12:8(ἀπλότητι [의미 영역 57], ἰλαρότητι [의미 영역 25]), 11(ζέοντες [의미 영역 25]); 14:15(λυπείται [의미 영역 25]); 15:26(εὐδοκέω [의미 영역 25]), 27(εὐδοκέω [의미 영역 25]).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καρδία*와 *νοῦς*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용례를 다 다루어 ‘마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φρονέω*의 경우 로마서에서 9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8번만 번역했고, 그 중 로마서 11:20과 12:6[2번]은 『개역개정』처럼 ‘마음’으로 번역하지만 나머지 5번은 ‘생각’과 관련한 것으로 번역했다(롬 8:5; 12:3[2번]; 14:6[두 번의 경우를 하나로 표현]; 15:5). 로마서 1:28의 *ἐπίγνωσις*의 경우 『개역개정』과 다르게 ‘마음’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3번의 경우를 모두 다르게 번역했기에²⁴⁾ 이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공동개정』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로마서에서 ‘마음’과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된 *καρδία*의 경우 15번의 사용 중 12번만 ‘마음’으로 번역하고 로마서 6:17은 ‘성심껏’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1:24와 10:6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지도 않았다. *Καρδία*가 ‘마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임에도 이런 식의 번역은 이해적이다. *Νοῦς*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서에서 6번 언급된 이 단어를 로마서 12:2는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5번은 ‘판단력’(롬 1:28), ‘이성’(롬 7:23, 25), ‘생각’(롬 11:34), ‘신념’(롬 14:5)으로 번역했다. 모두 생각 혹은 사고 작용과 관련된 번역이지만 일관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관성 부재의 문제는 *φρονέω*의 경우 더 심각하다. 로마서에서 9번 사용된 이 단어를 ‘마음’으로 3번 번역하고(롬 8:5[2번]; 12:16) ‘뜻’으로 1번(롬 15:5), ‘생각’으로 2번(롬 12:3, 16), ‘판단’으로 1번(롬 12:3) 번역했고, 심지어 로마서 11:20과 14:6의 경우는 번역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동개정』은 *φρονέω*의 동족어인 *φρόνημα*의 경우 ‘마음’으로 2번 번역하고(롬 8:6, 7) ‘생각’으로 1번 번역했다(롬 8:27). 다른 두 번역본이 모두 ‘생각’으로 번역한 것과 다른 형태이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세 번역본 모두 ‘마음’과 관련한 번역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²⁵⁾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성경 해석과 본문 이해에 영향을 미칠까? 아쉽지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²⁶⁾ 하지만 성경 원어가 일관성 있

24) 롬 1:28(‘인정하다’); 3:20(‘인식하다’); 10:2(‘지식’).

25) 우리말 성경 번역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을 보라.

26) 각 언어의 특성상 번역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 모든 단어를 문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별히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어(polysemy)의 경우는 문맥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의어의 경우도 일관성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표현들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다의어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핵심 의미는 존재하고 그것을 근거로 확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P. Cotterell and M.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 대한 번역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다.²⁷⁾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어떤 단어를 여러 문맥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기본 의미를 공유한 상태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원어에 상응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원어의 의미를 생략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은 같은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한 저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몇몇 부분에서 καρδία와 φρονέω를 번역해서 표현해도 문맥과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한 『공동개정』은 그 단어 번역의 타당성을 떠나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읽을 기회를 박탈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새번역』이 로마서 다른 부분에서는 ἐπίγνωσις를 번역하여 의미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8에서 그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 역시 독자들이 저자의 의도를 읽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²⁸⁾

3.2.2. 타당한 근거 없이 전체성을 전가하는 문제

우리말 번역본의 ‘마음’ 번역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타당한 근거 없이 한 단어의 포괄적 의미를 개별 용례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관성의 부재 차원보다 훨씬 심각하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καρδία와 νοῦς를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했다. 하지만 두 단어 모두를 ‘마음’으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독자로서 하여금 저자의 의도를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루와 나이다 사전에 의하면 καρδία와 νοῦς는 모두 의미 영역 26(심리적 기관들)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동의어(synonym)가 아니다. Καρδία는 생각과 사고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

Interpretation, 138-139. 다의어와 동음이의어(homonymy)에 대한 설명은 Ibid., 135-139; John Lyons,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54-60을 보라.

27) 나이다(Eugene A. Nida)는 번역의 일관성 점검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말한다. (1) 같은 문맥 속의 같은 단어와 구분은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2) 병행구분에 있어서 다른 점은 같은 점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3)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번역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경의 해당 부분이 번역된 다음에 실시되어야 한다. Eugene A. Nid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BT* 5 (1954), 178;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172에서 재인용.

28) 비크만(J. Beekman)과 콜로우(J. Callow)는 이런 현상을 의미와 관련해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를 주는 번역의 불성실이라고 부른다.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74), 38.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태도와 판단의 영역을 아우르는 인간 내면의 처소라는 상당히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voũc*는 주로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 집중된 개념을 전달한다. 그렇기에 굳이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일반적-구체적(Generic-specific)’이라는 상하 관계 속에 위치시킬 수 있겠다. 이 관계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상위 개념이고 구체적인 것은 실례나 설명에 해당되는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καρδία*는 상위 개념에 해당하고 보다 작은 개념의 *voũc*는 *καρδία* 안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하의어(hyponym)로 볼 수 있다.²⁹⁾ 바울이 이 둘을 구분해 쓰는 것은 인간 내면의 *καρδία*의 영역 중 *voũc*를 통해 생각과 사고의 차원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란 번역으로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면 바울의 의도를 독자들이 인식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voũc*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καρδία*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 예를 들어 감정의 영역까지 함께 고려해서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독자 몫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줄 수는 있다. 이 경우 *voũc*에 대한 번역에 일관성이 있을수록 더 많은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마음’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전체성을 전가하는 문제는 『새번역』과 『공동개정』이 『개역개정』의 경우 외에 추가한 부분에서 더 뚜렷해진다. 앞서 용례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 추가 번역 부분은 주로 감정과 관련한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성경 원문에서는 심리 기관과 관련한 의미 영역에 속한 단어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것과 관련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그런 표현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번역은 성경 원문의 의미를 오해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특별히 생각이나 사고의 의미로서의 ‘마음’과 정서적 의미로서의 ‘마음’을 혼동해서 이해하거나 혹은 모든 ‘마음’ 번역에 두 차원의 의미를 함께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다.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줄 수 있다.

구체적 실례를 들어 보자. 한 단어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부여해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문맥을 고려해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음’의 번역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 로마서에

29) 의미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상하 관계에 대해서는 John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456-458;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69-71을 참조하고, 동의어와 하의어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 관계에 대한 설명은 P. Cotterell and M.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155-161; M. Lynne Murphy,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33-242를 참조하라.

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구원과 관련한 인간의 상태를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각 단계에서 단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먼저,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바울은 *καρδία*와 *νοῦς*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그 상태는 내적으로 이해력이 없는 모습(롬 1:21, *καρδία*)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꾸어 동성을 향한 욕망에 붙잡힌 모습(롬 1:24: *καρδία*)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과의 영역(롬 1:28, *νοῦς*)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않는 상태(롬 2:5, *καρδία*)로 표현된다. 또한 율법을 통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의 ‘나’의 상태 역시 *νοῦς*를 통해 표현된다(롬 7:23, 25).³⁰ 이런 관찰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황을 포괄적 내면 상태(*καρδία*)가 망가져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별히 생각과 사과의 영역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νοῦς*를 통해 전하려는 듯하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이 두 그리스어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마음’으로 번역하면 *νοῦς*를 통해 전달하려는 생각과 사과의 영역에 대한 강조가 약화될 수 있다. 인간의 죄됨을 이해할 때 생각이나 가치관의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태도와 행위를 품은 내면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가능성을 줄 수 있다. 바울의 구원 설명과 다른 초점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후 구원의 과정과 삶에 대해서도 다른 초점과 방향성을 가진 이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한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오직 *καρδία*만 사용된다(롬 6:17; 10:9-10). 흥미롭게도 모든 바울 서신에서 이 과정과 관련해 믿음과 *νοῦς*를

30) 이 부분이 신자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75], 344-347; J. D. G. Dunn, *Romans 1-8*, WBC [Waco: Word, 1988], 387-389, 403-412; L.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1988], 284-288; S. E. Porter, *The Letter to the Romans: A Linguistic and Literary Commentary*, NTM 37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5], 145 등)인지 불신자의 경우(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198-212;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447-448; N. T. Wright, “Romans”, Leander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Vol. 10: Acts, Romans, 1 Corinthians* [Nashville: Abingdon, 2002], 551-555; Ben 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04], 195 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필자는 불신자의 경험을 다루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근거와 논쟁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Academic, 2010), 363-367을 참고하라. 하지만 이것이 구원 얻은 이후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본 논문의 논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인지와 사과의 영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 연결한 표현은 없다.³¹⁾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각과 사고의 차원이 필요하지만 전인적인 결정 혹은 포괄적 내면의 결정을 강조하려는 듯하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모든 상황을 ‘마음’으로만 번역하면 이번에는 구원 얻는 믿음의 반응을 단순한 인지적 동의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voûς*도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모든 것이 담긴 포괄적인 단어로 제시했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기 이전 단계에서 생각과 사고의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도 그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못 얻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구원을 얻는 믿음에 어떤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단순히 인지적 동의 혹은 감정적 경험 등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 모습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이다. 삶에 대한 것이니까 내적 외적 상황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로마서 12:2에서 *voûς*를 사용하여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서 1-8장에서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하고 9-11장에서 그에 근거한 유대인의 상태와 구원,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성을 설명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신자의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포괄적인 *καρδία* 대신 생각과 사고의 영역을 말하는 *voûς*라는 표현으로 시작한 것이다. 신자의 삶과 관련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³²⁾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마음’으로 번역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경우는 독자들이 그 단어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포괄적 언어를 한 단어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계속 번역해 왔기에 단어 구별을 통해 강조점을 구분하기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새번역』의 경우는 *καρδία*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도 감정의 단어와 ‘마음’의 표현을 섞어 번역했기에 더더욱 로마서 12:2에서 생각과 사고를 부각시킨 바울의 의도를 찾기가 쉽지 않을지 모른다. 『공동개정』도 이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일하게 태도와 감정의 영역을 ‘마음’과 결부시켜 많이 번역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의 번역들은 바울이 왜 신자의 삶을 설명하면서 *φρονέω*와 *φρόνημα*라는 생각과 사고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주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신자의 삶의 중요한 차원

31)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voûς*와 믿음과의 연결은 구원 이전의 상태를 소개할 때만 보인다(예, 답후 3:8; 딤후 1:15).

32) 롬 12:1-2와 이전 부분과의 연결성과 그에 따른 함의에 대해서는 이재현, “로마서에 나타난 반복과 지연을 통한 윤리적 권면,” 『신약논단』 19 (2012), 203-240을 참조하라.

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심하게는 신앙의 삶에서 생각의 차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신앙을 단순히 정서의 요소가 담긴 ‘마음’의 윤리적 차원과 그로 인한 행동의 차원으로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말 성경에 있는 ‘마음’ 번역의 문제는 (1) 헬라어 원문의 단어 사용에 구별이 있었음에도 각 단어의 용례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번역한 점, (2) 번역의 일관성을 놓친 점, (3) 타당성 없이 ‘마음’이란 단어의 포괄적 의미를 한 단어에 전가시킨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대안을 통한 바울의 생각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간략하게 그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4. ‘마음’에 대한 적절한 번역과 바울 신학 다시 보기

4.1. ‘마음’에 대한 번역 제안

우리말 번역본의 ‘마음’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은 번역 과정의 문제였기에 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먼저 하고자 한다. 첫째, 가능하면 원문의 단어와 번역 언어의 단어 사이에 어휘 동등성(lexical equivalence)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성경 원문의 단어에 상응하는 우리말 단어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동의어나 반의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뜻을 풀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³³⁾ 하지만 ‘마음’과 관련한 그리스어 단어들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말에 그 개념과 표현에 상응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원문의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비크만(J. Beekman)과 캘로우(J. Callow)의 제안을 들을 필요가 있다.³⁴⁾

[언어들 간에 개념들이 공유된다는 전제 하에] 언어들 간의 어휘 구조의 차이들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번역의 과정에서 모든 어휘의 동등성은 “문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문자적” 어휘 동등성이란 어휘 구조의 변화 없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33) 이 문제에 대해서는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175-211을 참고하라.

34) *Ibid.*, 177.

예를 들어, 단어는 단어로, 상징적 표현은 상징적 표현으로, 동의어는 동의어로, 반의어는 반의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καρδία*와 *νοῦς*를 서로 구분해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포괄적 개념의 ‘마음’으로 후자는 ‘이성’이나 ‘생각’ 등의 사고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영어 번역에서도 이 단어들을 *heart*와 *mind*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이 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 『공동개정』의 번역이 일리가 있다. 『개역개정』이 로마서 1:28에서 ‘마음’으로 번역한 *ἐπίγνωσις*는 ‘지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Φρονέω*의 경우 역시 ‘마음’이라는 포괄적 단어 대신 ‘생각하다’ 혹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 역시 사고 영역에만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로마서 12:16을 “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번역한 것을 ‘같은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³⁵⁾ 한편,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 감정과 태도와 관련해 ‘마음’을 넣어 의역하거나 첨가한 부분들은 그 단어를 생략하고 표현해도 된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15에서 *ὁ ἀδελφός σου λυπείται*를 “[당신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이라는 번역 대신 “당신의 형제가 슬퍼하게 된다면”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로마서 15:26과 27의 경우 *εὐδόκησαν*을 “기쁜 마음으로” 대신 『개역개정』처럼 “기뻐했다”로 번역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11에서 *ζέοντες*를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새번역』)나 “열렬한 마음으로”(『공동개정』)라고 번역하는 대신 “[성령으로 인한] 열정으로”라고 번역해도 된다.³⁶⁾

‘마음’ 번역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은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번역의 일관성은 타당성 없이 전체성을 전가하는 문제와 상충되는 듯 보인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문의 단어를 똑같이 번역해야 할 것 같고, 타당한 근거 없는 전체성 전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일 단어로 통일해서 번역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번역의 일관성이란

35) 『공동개정』은 첫 번째는 “한마음”으로 번역했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오만한 생각”으로 번역했다.

36) 『개역개정』은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τῷ πνεύματι*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번역했다. 이것이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J. A. Fitzmyer,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93], 654) 혹은 성령을 의미하는지(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778; Arland J. Hultgr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455) 논란이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해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할 수 있는 번역이다. 특별히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 단어의 모든 용례를 반드시 똑같은 표현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때때로 원문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맥에 적절한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표현이 너무 어색하거나 어휘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동일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καρδία*는 일괄되게 ‘마음’이란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 그리고 연결된 단어에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 안에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독자들이 동일 단어를 통해 표현하려는 저자의 의도나 주제 혹은 개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νοῦς*의 경우 영어로는 *mind*라는 단어로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로는 단어 연결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란 단어 대신 생각과 사고에 대한 **의미 영역**을 유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울이 이 단어로 강조하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다.

4.2. 새로운 번역 제안에 의한 바울 신학 고찰

새로운 번역 제안들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앞서 ‘마음’ 번역의 용례들의 문제점을 짚어 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번역 제안들의 유용성도 구원의 과정과 관련한 문맥에서 살펴보겠다.

첫 단계는 구원 이전 상황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이다. 그 핵심 표현은 로마서 1:28이다. 주요한 세 번역본들이 모두 다르게 번역한 부분이다.

『개역개정』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새번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공동개정』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두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한데, 하나는 문맥이고 다른 하나는 ἐπίγνωσις와 νοῦς를 포함한 내용이다. 먼저 로마서 1:28의 문맥은 로마서 1:18에서 시작한다. 로마서 1:16-17에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 이 부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반응에 대해 하늘로부터 진노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1) 하나님의 진리와 (2) 진리에 대한 인간의 거절, 그리고 (3)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후 로마서 1:19-32에서 하나씩 설명된다.³⁷⁾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진리는 로마서 1:19-20에서 설명한다. 그 진리는 창조를 통해 드러낸 창조주의 신적 속성인데 인간들이 이미 인지하고(καθοράω: 의미 영역 27[배우다]; 롬 1:20)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절은 로마서 1:21-23에서 서술된다. 주목할 점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인지와 생각의 내적 차원과 행위와 태도의 외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고(롬 1:21상반, 행위와 태도의 영역[A]) 오히려 내적으로 그들의 사고(διαλογισμοῖς: 의미 영역 30[생각하다])가 허망해지고(롬 1:21하반, 인지와 생각의 내적 영역[B]) 마음(καρδία)이 미련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나 어리석은(μωραίνω: 의미 영역 32[이해]) 상태가 되어(롬 1:22, 인지와 생각의 내적 영역[B])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꾸어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롬 1:23, 행위와 태도의 영역[B]).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행위와 태도의 외적 영역(A) - 인지와 생각의 내적 영역(B) - 인지와 생각의 내적 영역(B) - 행위와 태도의 외적 영역(A)의 구조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초점을 보여준다. (1) 인간 죄인됨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절이다. 단순히 사회-윤리적 문제가 아닌 창조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절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위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다. (3) 그 문제의 시작 혹은 핵심은 내면의 인지와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소위 안에서 망가진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방식(inside-out)인데, 내면의 인지 과정의 망가짐이 시작임을 말하

37) 롬 1:18-32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99-128을 보라.

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 과정의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로마서 1:24에서 32까지 진행된다. 하나님을 문장의 주어로 해서 *παρέδωκεν*(“넘겨주었다”)이라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여 묘사한다(롬 1:24, 26, 28). 우리말 주요 번역들은 모두 “내버려 두다”라는 소극적 의미로 번역했지만, 합당한 번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의미 영역 37.G[배신하다, 넘겨주다]).³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참고, 마 26:21, 23). 바이른(B. Byrne)은 이 단어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영향력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의 주도성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고 본다.³⁹⁾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로마서 1:21-23에서 제시한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와 태도의 외적 영역과 인지와 사고의 내적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심판의 첫 부분인 로마서 1:24-26은 인간 반응의 행위와 태도 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바꾸다’라는 연결점을 통해 로마서 1:23에서 언급된 경배 대상을 바꾼(*ἔλλαξαν*) 인간의 행위와 태도 차원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꾸어(*μετέλλαξαν*)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동성을 하나님 진노의 예로 설명한다. 로마서 1:28부터는 인지와 사고의 내적 영역에 초점 맞추어 인간의 죄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한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28을 담고 있는 문맥은 인간이 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의 이해가 구원 과정과 그 이후의 신자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된 모습의 반전이 구원의 과정이요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맥 안에서 로마서 1:28의 내용은 인간 죄인됨의 핵심 과정을 담고 있다. 특별히 로마서 1:21-23에서 언급한 인지와 사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응답을 말한다. 이 부분 역시 로마서 1:18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호 과정을 담고 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다. 시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ἐπίγνωσις* 안에 담는 것을 합당하게(*ἐδοκίμασαν*) 여기지 않는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ἐπίγνωσις*를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와 상응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다. ‘지식’이라고 해야 옳다. 루와 나이다

38)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473.

39) B. Byrne, *Romans*, SP (Collegeville: Michael Glazier, 1996), 75.

사전은 이 단어를 ‘알다’의 내용과 활동이 담긴 의미 영역 28(알다) 속에 위치시켰고,⁴⁰⁾ BDAG에서도 지식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말했기 때문이다.⁴¹⁾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 단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또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싫어하다”는 표현으로 인간의 반응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담긴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δοκίμαζω*인데 사고 작용과 관련한 의미 영역(27[배우다], 30[생각하다])을 가진 단어이다.⁴²⁾ 그렇기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싫어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분을 자신의 지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한 후 거절하고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한 지식을 지식체계 혹은 사고체계라고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인간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지식체계나 사고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도 능동적으로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이것을 근원적인 죄(The sin)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주인과 왕으로 세운 사고체계나 지식체계를 갖게 되며,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의 근원적 모습에 응답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들의 *νοῦς* 안으로 그들을 던져 넣으신다. 하나님을 배제하여 자신만 존재하는 사고와 생각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바울이 이 과정에서 *νοῦς*를 쓴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사고와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핵심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의 의도가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바울의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공동개정』의 ‘판단력’이 비슷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고체계나 지식체계이기에 『공동개정』역시 적절한 번역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이성’ 혹은 ‘생각’이라는 인지 영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체계], 곧 망가진 ‘생각’이나 ‘이성’의 사고체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모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롬 1:28하반-31). 악한 일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분과 관계없는 것이기에 악한 것이다. 이것을 죄들(sins)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한 일들이 인간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

40)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334, 336.

41)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369.

42)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332, 362, 364.

적 진노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인간은 그 근원적인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악들로 인해 미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롬 2:5).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이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비록 바울은 믿음과 *voũς*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καρδία*만을 사용하지만, 생각과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고려한다면 믿음의 반응에는 반드시 *voũς*와 관련된 영역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죄의 핵심이 지식[체계] 안에 하나님이란 변수를 거절한 것이고, 인간은 그런 망가진 사고[체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사고[체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지식[체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과 함께 해야 할 ‘회개’의 모습이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의 바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바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요한 단계는 내면의 잘못된 ‘사고[체계]’에서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구원 얻는 과정에서 생각과 사고의 차원이 중요했다면, 이 요소는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바울이 로마서 12:2에서 *voũς*로 신자의 삶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구원 받기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생각이나 사고체계가 아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각으로 살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로마서 1:28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⁴³⁾ 이런 면에서 로마서 12:3을 시작으로 신자의 삶의 여러 모습을 *φρονέω*를 통한 ‘생각’의 요소로 계속 말하는 것도 이해된다. 단순히 행위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새로운 지식[체계], 새로운 가치관에서의 시작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지식[체계]에서 시작된 안에서 밖으로의 삶이었다면, 구원 얻은 신자의 모습은 그분을 중심으로 모신 지식[체계]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안에서 밖으로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⁴⁴⁾

이런 이해는 바울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καρδία*와 구체적으로 사고와

43)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757; Colin G. Kruse, *Paul's Letter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12), 465.

44) 단순히 LXX에 비해 사용 빈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신약에서 *voũς*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샌드(A. Sand)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A. Sand, “*voũς*”,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94], 478). 바울은 구원의 과정에서 사고의 영역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voũς*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생각의 영역을 의미하는 νοῦς나 φρονέω 등의 단어들을 구분해서 사용한 것을 민감하게 고려해서 얻은 결과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뭉뚱그려 번역한다면 얻기 쉽지 않은 이해이다.

5. 나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원문을 통한 저자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 치밀한 석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독자의 언어로 적절하게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역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우리말 번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번역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심각한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전해주고픈 복음의 내용과 그와 관련한 의도와 초점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일관성 문제와 함께 한 단어의 포괄적 의미를 타당한 근거 없이 모든 상황에 밀어 넣어 저자가 말하려는 문맥과 내용을 오해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마음’이란 포괄적 의미를 가진 우리말 단어를 성경 원문과 문맥에 맞게 조심해서 번역해야 함과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마음’과 사고의 영역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 구별해서 번역할 것을 제안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바울의 구원 이해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보았다.

어느 번역도 완전한 것은 없다. 하지만 더 적절한 이해와 번역을 위해 고심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려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계속되는 번역 작업에 작은 기여를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우리말 ‘마음’ 번역, 의미론, 번역의 일관성, 타당한 근거 없는 전체성 전가, 바울 신학.

‘Ma-eum’ in Korean Translation, Semantics, consistency in Bible translation, 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 Pauline Theology.

(투고 일자: 2017년 1월 25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마음”,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7. 1. 10).
- 이민규,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에 대한 평가와 사용 방법”, 『성경원문연구』 15 (2004), 350-373.
-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
- 이재현, “로마서에 나타난 반복과 지연을 통한 윤리적 권면”, 『신약논단』 19 (2012), 203-240
-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159-184.
- Barr, James,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F. W.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ekman, J. and Callow, J.,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74.
- Byrne, B., *Romans*, SP, Collegeville: Michael Grazer, 1996.
- Campbell, Constantine R., *Advances in the Study of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15.
- Carson, D. A., *Exegetical Fallacies*,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6.
- Cotterell, P. and Turner, M.,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9.
-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2 vols., Edinburgh: T & T Clark, 1975.
- de Saussure, Ferdinand,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 tra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6.
- Dunn, J. D. G., *Romans 1-8*, WBC, Waco: Word, 1988.
- Halliday, M. A. K. and Hasan, R.,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Hultgren, Arland J.,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 Käsemann, E.,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Kruse, Colin G., *Paul's Letter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12.
- Lee, Jae Hyun,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Academic, 2010.
- Levinsohn, S. E.,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A Coursebook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2000.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Lyons, John,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Lyons, John,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orris, L.,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1988.
- Murphy, M. Lynne,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Nida, Eugene 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BT* 5 (1954), 176-181.
- Ogden, C. K. and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Brace & Co., 1945.
- Porter, S. E., *The Letter to the Romans: A Linguistic and Literary Commentary*, NTM 37,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5.
- Runge, Steven 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10.
- Sand, A., “*νοῦς*”, *EDNT*,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94, 478-479.
- Silva, M.,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Witherington, B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04.

<Abstract>

**A Suggestion on the Use of ‘ma-eum’ in Korean
Translations of the Pauline Letters: A Semantic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 Focused on Romans**

Jae Hyun Lee

(Chaplain i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use of ‘ma-eum’ in Korean translations in light of the concept of the 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 In 1961, James Barr, a British biblical scholar, coined the term ‘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 when he criticized the approach of TDNT, which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logical dictionaries at that time. This phenomenon can happen when one understands the meaning of a word in the bibl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eaning in various contexts, one can get a total view or meaning of a certain word as a summary. It is a normal way to get a possible meaning of a word. However, if the interpreter tries to understand the text with the assumption that in every case the word connotes the total meaning regardless of its context, several problems arise. He/she can neglect the authorial intention in a text, which the author expresses with the choice of a certain word in a specific context. In addition, to distort the meaning of the word is also possible. Even though this error happen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Greek or Hebrew word in the bible, the same thing can also happen in translating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bible into Korean. One of the examples is the use of ‘ma-eum’ in Korean translation. Since this word has a wide range of meaning including the cognitive, emotional, and volitional aspects, it is often used as the standard word to express the inner situation of human. Because of its inclusive meaning, most of the Korean bible translations use it to translate the Greek words in various context and show the same problems caused by the illegitimate totally transfer.

This paper examines all the cases of ‘ma-eum’ in the three major Korean bible translations,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and *the revised edition of the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and points out twofold problem. One is their inconsistency in translation and the other is the pitfalls of the 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 with

regard to ‘ma-eum’ translation. Even though *καρδία* (*kardia*), which is translated as heart in English, is the most general term to express the inner state of human, Paul distinguishes it with other words such as *νοῦς* (*nous*) and *φρονέω* (*phroneō*) that connote the cognitive aspect of the heart. Moreover, he maintains their distinctions consistently in describing the process of salvation. However, the present use of ‘ma-eum’ in Korean translation fails to reflect Paul’s intention, so it makes the readers overlook his emphasis on the thinking or cognitive aspect in the salvation proces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o use ‘ma-eum’ only as a translation of *καρδία* consistently. With regard to the other words about the cognitive aspect of inner state, however, this paper proposes not to use ‘ma-eum’ but to use different terms such as ‘saeng-gak’ or ‘e-seong’ for *νοῦς* and ‘saeng-gak-ha-da’ for *φρονέω*, etc., and to maintain their consistency by selecting proper expressions within the same semantic domain. After then,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sketch of Paul’s explanation on the salvation process and his emphasis based on the proposed translation.

Translation is to link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s by leading the readers into the same linguistic environment of the author. Since translation deals with two different languages, however, the connecting work is on-going process and its outcome is not always perfect. It leads us to consider that translation always needs evaluation and revision. In this sense the goal of this paper is still valid: to put another stepping stone on the way of linking the bible and the readers by providing proper evaluation.

Translation is to link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s by leading the readers into the same linguistic environment of the author. Since translation deals with two different languages, however, the connecting work is on-going process and its outcome is not always perfect. It leads us to consider that translation always needs evaluation and revision. In this sense the goal of this paper is still valid: to put another stepping stone on the way of linking the Bible and the readers by providing proper evaluation.